

광주시청 기타동호회

키사모



기타를 전공무원, 그 누가 부러울까



키사모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광현(왼쪽 맨앞) 씨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김경업·최은화·이형모·최정식·김은진·박용범·박현철·박성철·류현·남미선·최영득·박철진·조기대 회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크리스마스 위문 공연.



40여명 회원 씩이 실력 닮아

동료직원·광주시민들에 '음악봉사'

7살 꼬마 명예회원 김채영양

임마다라 오년째 '기타 사랑'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침묵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했던가. 여섯살 기타 선율이 행복을 표현하고 행복을 찾는 이들이 있다. 광주시청 기타 동호회 ‘키사모’(기타를 사랑하는 모임).

지난 18일 밤 7시30분 광주시청 18층 키사모 회원들의 ‘아지트’를 찾았다. 귀에 익은 음악소리가 기타 선율을 타고 흘러나왔다. ‘키사모’가 만들어내는 ‘나는 행복한 사람’의 화음이었다. 회원 15명이 어깨에 기타를 둘러메고 발로 박자를 맞춰가며 경쾌한 ‘흥키퉁키’ 리듬으로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나는 행복하니까’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들의 만연한 행복이 가득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키사모’는 올해로 4년째다. 지난 2006년 11월, 딱딱한 공직사의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욕심에서 출발했다.

창립을 주도한 박현철(55·갑사관실 행정감사담당) 회장은 “광주시가 예향·문화수도를 표방하지만 실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많지 않고 분위기도 딱딱하다”며 “이런 분위기를 고쳐보고자 시청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 동호회를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창립 초창기 때만 해도 기타가방 메고 다니던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다 시청 행사에서 무대에 오르고 대회에도 출전하면서 동료들에게 알려졌고, 이전 기타가방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광산구 소촌동 소방학교에 근무하는 류현(47·여) 씨는 “기타를 통해 내 자신이 많이 변했음을 느낀다”며 “기타를 만나기 전에는 소심한 성격에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꼈었는데 요즘엔 나날이 너무 즐겁다”며 뿌듯해했다.

40여명의 키사모 회원들은 실력에서 초보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기타와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한결같다. 각자 업무로 바쁘지만 매주 두차례(1기-월·수, 2기-화·목) 밤 7시에 모여 1시간정도 연습한다. 공연을 앞두고는 2주일전부터 매일 모여 화음을 맞춘다.

이들은 이렇게 닦은 실력으로 동료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매년 11월 1일 개최되는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고정 출연해 흥을

돋우고, 지난해에는 여성합창페스티벌에 출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게 한번 두번 무대에 오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요즘엔 직원 행사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간간히 공연 요청도 들어온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광산구 장애인복지시설인 ‘보람의 집’을 방문, 위문 공연을 퍼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부산에 출장갔다 왔다는 자칭 ‘천사’ 최영득(46·환경정책과) 씨는 “예전에 출장갔다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불우이웃돕기 기타 공연을 봤어요. 그 모습에 감동받아 저도 용기를 냈죠”라며 기타는 취미 생활도 즐기고 더불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 좋다고 추천했다. 그는 “통기타를 배우고 나면 전자기타를 배워 그룹사운드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회원들 사이에 ‘신녀’로 불리는 남미선(38·여·경제정책과)씨는 네아이의 어머니다. “처음엔 기타질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완전 초보’였는데 4년째 화음을 맞추다보니 결국엔 잘 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얼굴과 성격도 밝아지고 민원인들에게도 더 친절해졌어요.” 남씨의 키사모 자랑이다.

키사모엔 꼬마 회원(?)도 있다. 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채영(7·여) 양. 키사모 리드싱어인 엄마 최은화(38·여·대우구조과) 씨를 따라 2년째 노래 실력을 갈고 닦고 있다. 채영이는 지난해 여성합창 페스티벌에 출전한 경험을 가진 키사모의 귀염둥이이다.

키사모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광현(45·조광현의 주부클럽 원장) 씨는 “악기를 배우려고 생각했다면 과감히 악기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즐거움 감사를 찾아야 음악과 좀 더 쉽게 친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혜정(48·여·보건위생과) 씨는 “음악과 기타를 사랑하는 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조건없이 키사모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며 “모여서 함께 기타 치고 노래하다 보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관심있는 직원들은 용기를 내 노크하라고 말했다. 문의, 박현철 회장 (062)613-223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onstruction services by M & A, featuring a large '허설면' header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wangju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list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ing contact info and multiple tables of property listings.